

김사량 문학의

탈근대주의 특성 연구

이춘매
저

민족출판사

김사량 문학의 탈식민주의 특성 연구

이춘매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金史良文学的后殖民主义特征研究：朝鲜文 / 李春梅著.
—北京：民族出版社，2009.6
ISBN 978-7-105-10128-3

I. 金… II. 李… III. 金史良—文学研究—朝鲜语
IV. I312.506.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00331号

责任编辑：金银姬

封面设计：李 峰

出版发行：民族出版社出版发行

地 址：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100013

网 址：<http://www.mzcbs.com>

印 刷：迪鑫印刷厂印刷

经 销：各地新华书店经销

版 次：2009年6月第1版 2009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880毫米×1230毫米 1/32 字数：243千字

印 张：9.25

定 价：22.00元

ISBN 978-7-105-10128-3/I · 2052(朝217)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58130534；发行部电话：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9년 6월 제1판 2009년 6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9.25

자수: 243천자 값: 22.00원

ISBN 978-7-105-10128-3/I · 2052(조217)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추천사

이춘매 씨의 박사 학위논문이 출판된다고 하니 더없이 기쁘다. 공자님은 총기 좋은 젊은이를 만나 가르치는 게 인생의 3대 즐거움의 하나라고 했다. 춘매 씨는 타고난 총명에 아무지게 노력도 많이 했고 이런 착실한 제자와 함께 3년간 공부를 한 일이 나에게 평생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춘매 씨가 박사 학위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좀 당혹감을 느꼈다. 동북사범대학교 일본어 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나왔기 때문이다. 동북의 명문 대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대관절 조선 문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이도 아니 난 주제에 콩밥부터 먹자고 하는가?

하지만 정작 만나고 보니 총기가 좋고 공부 의욕이 특별히 강한 젊은이었다. 문학 이론이나 조선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교수들은 받기를 꺼렸으나 나는 좀 생각을 달리했다. 조문 학부 출신은 아니지만 소학교에서 고급 중학교까지 우리 민족 학교에서 공부해서 우리말과 글에 막힘이 없었다. 게다가 일본어까지 정통했는지라 한 몸에 두 날개를 가진 격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한족과 조선족의 잡거 지역인 장백현 태생이라 한어(漢語)도 잘하고 제2외국어로 영어까지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네 나라의 말과 글에 두루 통하는 젊은이었다.

요즘은 학과 간의 교차, 비교 연구에서 모가 난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 황차 조선 문학의 경우 고대에는 중국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현대에 와서는 일본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즉 한어와 일본어에 능하다면 적어도 쌍방의 보다 많은 텍스트를 섭렵할 수 있어 자연 연구 대상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특히 조선반도 밖의 일본이나 미국의 조선 민족 문학을 다룰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의해서 연구의 성패가 갈린다. 왜냐하면 재일 조선인 문학이나 재미 조선인 문학은 대체로 거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나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춘매 씨가 조선 문학에 대한 공부만 보충한다면 적어도 일본에서 일본어로 진행된 재일 조선인 문학에 한해서는 자유자재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했다.

사실 재일 조선인 문학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두루 공부해 왔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와세다대학교에 객원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 김사량, 장혁주, 김달수, 김석범, 김학영, 이회성, 이량지 등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졌었다. 김사량의 단편소설 「빛속으로」, 이회성의 단편소설 「다듬이질하는 여인」, 이량지의 중편소설 「유희」를 읽었을 때의 충격과 감동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오오무라 마스오 교수의 주선으로 재일 조선인 작가로는 최초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이회성 작가를 만났고 그가 주최하는 『민도(民濤)』잡지 관련 모임에 자주 나갔으며 그의 자택에 초청을 받고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귀국한 후 다시 재일 조선인 문학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 책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나의 일본어 수준이 일본어로 된 재일 조선인 문학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일본어 학과 출신인 춘매 씨가 찾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랴.

춘매 씨는 연변대학교 조선 문학 박사과정 입학 통지서를 받자 청도농업대학교 일본어 학과 전임강사직을 사직해 버렸다. 말하자

면 한 걸음 물러설 수조차 없이 벼랑 끝에 배수진을 치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공부에 임했던 것이다. 나도 춘매 씨를 만난 덕분에 다시 재일 조선인 문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춘매 씨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보아 그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재일 조선인 문학의 정초자인 김사량을 다루기로 하였다. 그 무렵 하북성 원씨현 호가장에 김학철항일문학비와 나란히 김사량항일문학비가 서게 되어 김사량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더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김사량은 일제강점기 조선, 일본, 중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동아시아 일체형’ 작가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데 일제 식민지 치하의 약소민족의 고통과 분노, 지식인의 좌절과 고뇌를 다루면서 일제의 식민 정책을 신랄하게 야유, 풍자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갈등을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해외 동포 문학의 기본 테마를 가장 일찍 다룬 천재적인 작가였으며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의 언어로 일제의 식민 지배 논리의 허구성과 황당함을 해체, 전복시킨 탁월한 작가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을 탈식민주의 문화 담론이란 방법론으로 다룬다면 역사성과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논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춘매 씨는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학 연구 방법론을 공부했으며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에 착안해 김사량 소설의 텍스트를 치밀하게 정독, 분석, 종합함으로써 김사량 문학의 탈식민주의 특성을 깊이 있게 증명했다.

2008년 6월 춘매 씨는 박사 학위논문 답변을 무난히 마쳤는데 윤윤진, 김병민, 김관웅, 최웅권, 채미화, 허후훈 등 교수들로 무어진 심사 위원회에서는 그의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사량은 조선어와 일본어를 정통했고 조, 일 두 가지 언어 문자로 문학 창작을 한 흔치 않은 작가이다. 그는 암울한 일제 식민지 통치 말기에 조금 방황하기도 하였으나 자기를 반성하고 민족 의식을 고수한 지식인이다. 그는 마침내 항일 최전선에 투신해 조선의용군 전사로 되었고 조선 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작가로 된다. 그의 문학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의 현대문학에서 탈식민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만큼 학계의 관심을 받아 마땅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남북 문학계에서 오랫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춘매의 박사 학위논문 「김사량 문학의 탈식민주의 특성 연구」는 선인들이 연구한 기초 위에서 사회 역사 비평, 전기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 등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김사량의 생平和 문학관, 그의 문학의 전반적 흐름과 단계 및 탈식민주의 성격과 서사 전략 등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깊이 있고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현대문학사에서 가지는 김사량 문학의 의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석과 평가를 내렸다. 이 논문은 중국 학계에서의 김사량 문학에 대한 연구 공백을 메웠으니 가히 개척적인 의의를 지닌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가는 조선(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그의 합리한 지식 구조와 착실한 학술 소양 및 참다운 학술 태도와 정신을 보여 주었다. 물론 부분적인 분석은 보다 더 심입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절해야 한다.”

춘매 씨는 논문 답변을 마친 후 심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고를 다시 수정, 보완한 후 출판에 교부했다. 이는 청도 농업대학 전임강사 자리를 사직하고 갓 결혼한 남편과도 갈라져 연변대학교에서 3년이란 세월을 날마다 교실, 도서관에서 보내면

서 창 밖 세상에는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다. 난다 긴다 하는 사내들도 5, 6년씩 해야 하는 박사과정을 3년 만에 거뜬하게 끝냈는데 이게 다 타고난 총기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거니 고생을 배로 삼아 건너갈 수밖에 없다.(學海無涯苦作舟)”라고 했으니 춘매 씨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초지일관하게 열심히 공부해 중국 경내 조선학(한국학)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춘매 씨가 학위논문을 쓸 때 많은 자료를 보내주고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 아주대학교 송현호 교수, 강릉대학교 최병우 교수, 원광대학교 김재용 교수, 경희대학교 고인환 교수, 명지대학교 이재명 교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더불어 이 가난한 선비의 제자에게 귀한 장학금을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08년 12월 4일, 연변대학교 캠퍼스에 첫눈이 내린 날

김호웅

차례 CONTENTS

추천사

제1장 서론	1
1.1 문제 제기	1
1.2 기존 연구사 검토	3
1.3 연구 목적과 방법	16
제2장 김사량의 생애와 문학관	25
2.1 식민지 지식인의 파란만장한 삶	25
2.2 암울한 시대와 친일 일변도의 문단 풍토	42
2.3 독자 중심의 글쓰기와 이중적 언어관	49
제3장 김사량 문학의 흐름과 단계	72
3.1 제1단계: 동심의 세계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주목	72
3.2 제2단계: 탈식민적 담론과 저항의 세계	81
3.3 제3단계: 조선적인 세계로의 안주와 양심을 어긴 글쓰기	86
3.4 제4단계: 중국으로의 탈출과 「노마만리」	98
3.5 제5단계: 새로운 굴곡과 선택의 고뇌	104
제4장 김사량 소설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탈식민주의 특성 ·	118
4.1 식민지 하층민의 빈곤과 이산(離散)	119

4.2 식민주의 논리에 대한 신랄한 비판	137
4.3 일제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조선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	177
4.4 민족적 정체성의 붕괴와 방황하는 식민지 지식인	211
4.5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대안과 그 한계 ...	220
제5장 김사량 소설의 예술 표현에서 보여지는 탈식민적 서사 책략	234
5.1 ‘차이 드러내기’의 언어 구사	234
5.2 알레고리에 의한 우회적 수법	239
5.3 익살과 해학, 유머와 풍자	245
5.4 정신분석학적 수법에 의한 심리묘사	247
제6장 결론: 김사량 문학의 성취와 문학사적 의의	255
참고 문헌	261
부록 A: 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독특한 일본어 표기	270
부록 B: 김사량 작품 목록	276
후기	281

서론

1.1 문제 제기

김사량(金史良, 1914~1950)¹⁾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와 해방 공간 및 6·25전쟁 시기에 여러 장르에 걸쳐 활발히 문학 활동을 펼친 작가이다. 그는 1940년에 소설 「빛속으로」(원제 「光の中に」)가 일본 최고의 신인상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의 후보작²⁾으로 선정되면서 일본 문단에 데뷔했다.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1945년, 그는 중국 항일 근거지인 태항산으로 탈출하여 붓을 총으로 삼아 조선의용군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광복 후에는 조선에 갔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의 중군기자로 활약했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자 철퇴하다가 심장병으로 인해 대오에서 떨어져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의 문학은 조선(한국)—일본—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체형 체험의 기록이며 조선(한국) 문학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김사량은 시 25수, 소설 10편, 희곡 4편, 평론 12편, 수필 4편, 르포 12편, 동화 2편, 아동극 1부, 가극 1부 등 조선어 작품 71편을 남겼고 시 4수, 소설 23편, 르포 1편, 평론 3편, 수필 5편, 서간 19편 등 일본어 작품 55편을 남겼다. 그럼

1) 본명 김시창(金時昌). 정확한 사망 날짜와 원인은 아직 미상.

2) 1940년도 상반기, 즉 제10회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품은 사무카와 고우타로(寒川光太郎)의 『밀렵자(密獵者)』였다.

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문학은 남북 현대문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문단이 아닌 일본 문단에서 먼저 각광을 받았고 대부분의 작품을 일본어로 써냄으로써 친일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그의 문학의 귀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 직후 월북했으며 수령을 찬양하는 작품을 썼고 6·25전쟁 시기에 종군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셋째, 부유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며 비주류파였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은 한동안 북에서는 그의 출신 성분과 계보적 성격 때문에, 남에서는 그 정치적, 사상적 이유 때문에 문학사적 지평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김사량 문학은 “1940년대 한국 문학의 파행적 성격의 규명, 즉 시대 사상의 강요와 문학과 의 상관 관계, 해방 공간의 사상 선택과 ‘문학의 자기반성’과 관련된 문제, 한·일 문학의 문학 내적 관련 양상 등”³⁾ 면에서 많은 문학사적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사량 문학은 일제의 ‘문화 식민’ 하에서 강요된 일본어를 무기로 역이용하여 일제를 비판하고 식민주의를 해체하는 등 탈식민 담론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 김사량을 재평가하고 김사량 문학을 재조명하는 동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김사량의 작품은 한국의 민족문학작가회, 민족문제연구소, 실천문학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친일 문학 작품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그 또한 친일 작가의 명단

3) 김윤식, 「문학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주고받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일지사, 1984, 402쪽.

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8월 5일, 중국인민 항일전쟁승리 60주년 및 세계 반파쇼 전쟁승리 60주년에 즈음하여 하북성 원씨현 인민정부와 길림성 연변작가협회, 한국 실천문학사의 공동주최로 ‘김사량항일문학비’와 ‘김학철항일문학비’를 하북성 원씨현 흑수하향 호가장에 세우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에도 김사량과 그의 문학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고에서는 작가 김사량이 극적인 삶을 살면서 작품으로 표현하려 했던 문제 의식이 무엇인지, 국가의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학의 존립과 대응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문제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김사량 문학에 대한 탈식민 담론적 접근을 통해 그 문학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김사량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 조선, 일본 세 나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1954년에 『김사량작품집』⁴⁾을 출판하였고 1973년 전 4권 분량으로 일본어판 『김사량전집』⁵⁾을 간행하였다. 김사량 문학에 대한 연구는 재일 조선인 문학자, 유학생, 일부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다.

안우식⁶⁾은 김사량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4) 金達壽 편, 『金史良作品集』, 理論社, 1954.

5) 金達壽 등, 『金史良全集』(I~IV), 河出書房新社, 1973.

6) 安宇植, 『金史良—その抵抗の生涯』, 岩波新書, 1972.

——, 『金史良とムルオリ島』, 『文芸』, 1971. 5.

——, 『民族作家の位相—金史良試論』, 『文芸』, 1971. 5.

해 왔는데 그중에서 『평전 김사량』은 풍부한 자료와 실증적 연구가 돋보인다. 김석범⁷⁾은 모국어인 조선어와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의 상극 현상 및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에 나타나는 조선 문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임전혜 등⁸⁾ 재일 조선인 학자들이 일정한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학생들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정귀련⁹⁾, 이견지¹⁰⁾, 남부진¹¹⁾, 박균례¹²⁾, 정백수¹³⁾의 논문이 있고 박사 학위논문도 3편 정도 나왔다. 정귀련은 비교 문학의 각도에서 김사량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가 소설 구성, 인물 형상 등 면에서 구니키다 돗쿠포(国木田独歩)의 「호외(号外)」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구명하였다. 남부진은 김사량 문학을 ‘창씨개명’을 비롯한 식민지 제도 및 백백

-
- _____, 「金史良‘滅ぶものへの哀愁’考」, 季刊『三千裏』, 1979年 冬.
 _____, 『評伝 金史良』, 草風館(東京), 1983.
 安宇植, 「植民地時代の在日朝鮮人文學」, 季刊『青丘』 13, 1992.
 7) 金石範, 「金史良について言葉の側面から」, 『文學』, 1959. 2.
 _____, 「言語と自由」, 『人間』, 1970. 9.
 8) 任展慧, 「金史良ノート」, 『朝鮮研究』 56, 1966. 12.
 _____, 「金史良‘山の神神’完成までのプロセス」, 『海峽』 2, 1975. 7.
 _____, 『近代朝鮮文學における日本との関係様相』, 法政大學, 1994.
 李承玉, 「金史良について」, 『文芸評論』, 1956. 4.
 9) 丁貴連, 「國木田獨歩と若き韓國近代文學者の群像」, 築波大學 文芸・言語研究科 博士 論文, 平成八年度(1997).
 10) 李健志, 「『日本語』に殺された男—金史良の文學と死」, 『在日から考える二〇世紀を生きた朝鮮人』, 大和書房, 1998.
 11) 南富嶺, 「昭和文學の朝鮮體驗」, 築波大學 博士 論文, 1998.
 12) 樸杓禮, 「金史良作品試論」, 『駒沢國文』 37, 2000.
 13) 鄭百秀, 「血と名前の存在拘束とそれへの抵抗—‘光の中に’論」, 『比較文學研究』 第73號, 1999. 2.
 _____, 「被植民者の言語・文化的対応—‘草深し’論」, 『比較文學研究』 第74號, 1999. 8.
 _____, 「植民地‘國語’作家の内面—金史良‘天馬」, 『今月の新刊』, 青土社, 2001. 1.

교(白白敎)의 영향과 연관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백수¹⁴⁾는 「풀속깊이」, 「천마」, 「빛속으로」를 중심으로 식민지 말기 이중 언어 상황에 놓여 있는 김사량의 소설을 살펴보았으며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지기미」의 원작과 개작의 차이와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외 일부 일본인 연구자들도 이에 일정한 관심을 보였는데 크게 재일 조선인 문학의 각도에서 진행된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에는 하야시 고우지(林浩治),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등의 연구¹⁵⁾가 있고 후자에는 다카자키 고지(高崎隆治)¹⁶⁾,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¹⁷⁾,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¹⁸⁾ 등의 연구가 있다.

일본에서의 김사량 문학 연구는 재일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근거 및 그 뿌리를 찾기 위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김사량의 작품을 정리,

14) 鄭百秀, 「李光洙・金史良の日本語・朝鮮語小説—植民地朝鮮人作家の二言語文學の在り方—」, 東京大學 博士 論文, 1998.

15) 林浩治, 「金史良論」, 『遇行』 創刊號, 1987. 10.

———, 「金史良論」,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 新幹社, 1991.

川村湊, 「金史良と張赫宙」,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6—抵抗と屈從』, 岩波書店, 1993.

———,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平凡社, 1999.

16) 高崎隆治, 「金史良 乞食の墓について」, 季刊『三千裏』, 1976. 2.

17) 白川豊, 「佐賀高校時代の金史良」, 『朝鮮學報』 第147輯, 1993. 4.

———,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文學』, 大學教育出版, 1995. 시라카와는 평양고보, 사가 고등학교 시절의 김사량이 한때 조선 언론 매체에 투고한 여러 작품들을 찾아냈고 실증적 입장에서 김사량의 행적 및 작품 활동에 대해 연구했다.

18) 布袋敏博, 「解放直後の金史良覺書」, 『靑丘學術論集』(東京) 제19집, 2001. 11. 이 글에서 도시히로는 조선에서의 김사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김사량이 화북 태항산으로 탈출하여 귀국할 때까지의 정확한 날짜를 논증하고 있다.

번역하고 김사랑 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증적 입장에서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김사랑 문학을 다룬 것은 1954년에 간행된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이다. 이 책에서 엄호석은 「조국해방 전쟁시기의 우리 문학」의 제4장 「예리한 전투적무기로서의 산문」 부분에서 김사랑의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와 「바다가 보인다」를 다루었다.¹⁹⁾ 김사랑의 작품집으로는 1955년에 간행한 『김사랑선집』²⁰⁾과 1987년에 간행한 『김사랑작품집』²¹⁾이 있다.

김사랑은 연극 「호접(胡蝶)」²²⁾ 때문에 「과거 일제에 협력한 친일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안우식 등에 의한 김사랑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다시 김사랑의 명예 회복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은종섭은 「위대한 령도 따라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40년」²³⁾이라는 글에서 6·25전쟁 시기 김사랑의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평가하였고, 이일복은 「실화문학 빛나는 삶」²⁴⁾에서 김사

19)布袋敏博,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김사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국문학 전공 박사 학위논문, 2007, 78쪽.

20) 『김사랑선집』, 국립출판사, 1955. 여기에는 「여마천리」를 개작한 「노마만리」와 「남에서 온 편지」, 「바다가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등을 수록하고 있다.

21) 『김사랑작품집』, 문예출판사, 1987. 여기에는 「칠현금」,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 「남에서 온 편지」, 「토성랑」, 「빛속에」, 「서울서 수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낙동강반의 전호 속에서」, 「바다가 보인다」 등이 실려 있다.

22) 「호접」은 일명 「호가장(胡家莊)전투」이다. 후일 이 작품은 문고본으로 간행되었다고 하나 출판 연월일 및 출판사 명은 알 수 없다.

23) 은종섭, 「위대한 령도 따라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40년」, 『조선문학』, 1985. 6.

24) 이일복, 「실화문학 빛나는 삶」, 『조선문학』 1~3호, 1986.